

# 사회변동과 언어변화: 1960년대 다시 보기

---

오새내\*

계명대학교 Tabula Rasa College<sup>1\*</sup>

[snoh@kmu.ac.kr](mailto:snoh@kmu.ac.kr)\*

## 1. 서론

언어변화의 요인으로는 언어 체계의 질서 변화(Internally motivated change), 다양한 변이형들의 접촉(externally motivated change), 인구 구조 변화, 사회정치적 변화 등 사회의 변동(extra-linguistic motivated change)을 들 수 있고, 이 세 가지 요인들은 동시에 작동하며 인간의 언어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Jones, M. C., & Esch, E. (eds) 2002, Jones, M.C., & Singh, I. 2006). 언어변화 연구를 위해서는 언어자료의 확보와 분석도 중요하지만 언어변화를 감지하고 이를 보고하는 당대 언어사용자들의 기록은 시점(時點)을 파악한다는 측면에서 중요하다.

이 글에서는 1960년대를 중심으로 당시 국어 연구자들이 지목한 사회변동과 관련된 언어 현상들을 정리하고, 반세기가 지난 지금 과연 그 현상을 언어변화라고 할 수 있는지, 그 언어 현상이 사회변동과 구체적으로 어떤 관련이 있었는지, 이후 연구에서 어떤 궤적으로 조망되었는지 대략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이 글에서 1960년대를 주목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우선 김형규(1961), 강신항(1965) 등 당시의 국어학 연구자들이 1960년대를 언어변화의 분기점으로 인지하고 자신들이 감지한 언어변화와 이러한 변화가 사회변동과 관련이 있다는 논평 기록을 남겼기 때문이다. 국어학 연구자들은 한국어의 공시적인 모습을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관찰하고 분석하는 전문가 집단이자 동시대의 언어사용자이다. 이들의 기록은 한국어의 변화에 대한 그 시대의 언어 인식, 언어 현실을 파악하는 자료가 된다. 1960년대의 국어연구자들은 어문민족주의와 실증주의, 외국의 언어 이론을 동시에 경험하고 공부한 세대이다. 최경봉(2010:168)은 1960년대 이전까지 국어학 연구의 주류적 경향이 어문민족주의에 기반한 국어 규범 정립의 과제와 연관되어 있었으나 국어 규범화 연구가 정리되는 시점에서 실증적인 국어학으로 전환되었기에 이 시기를 국어학사에서 근대와 현대의 분기점으로 보아야 한다고 하였다. 이 시기는 국어 연구에 외국의 언어이론이 적용되고 특히 서구의 사회언어학 연구방법론이 한국의 학계에 유입된 시기이기도 하다. 당시 연구자들은 언어를 보고 연구하는 관점이 이전 세대의 연구자들과 차이가 있었다.

1960년대는 현대 국어의 변천 연구를 위해서도 중요하다. 1960년대의 청소년들, 청년층은 2020년대 현재 중장년층이 되었다. 기록을 보면 1960년대 당시의 청소년, 청년층은 언어변화의 주체이자 개신자였다. 이전 세대와 다른 움직임은 연구자들의 기록으로 남았다. 그런데 1960년대 당시에 청소년, 청년층이 주도하는 언어변화로 지목된 언어현상이 지속적으로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었다면 이는 언어변화라고 할 수 있지만 생애주기상 특정 시기에만 나타나거나, 이 세대만 사용하고 다음 세대로 전승되지 않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대한 판단은

시간이 지난 이후에 가능하다. 이제는 1960년대의 언어현상을 주제로 2020년대 현재 시점에서 전 연령대별로 파악할 수 있는 겉보기 시간(Apparent Time) 접근과 1950~60년대 출생자 집단의 청소년기에서 노년기까지 종단적으로 파악하는 실시간(real time) 접근을 동시에 할 수 있게 되었다. 이제 언어사회의 구성원들의 아동기, 청소년기, 청년기, 중년기, 장년기 등 생애주기별 궤적을 파악할 수 있는 시기가 왔다.

이 글에서는 1960년대의 한국어 연구에서 사회변동에 따른 언어변화로 지목한 사항을 정리하고 50년이 지난 현 상황에서 어떤 방향으로 진행되었는지 고찰해보고자 한다. 이 당시 '사회변동과 관련된 언어변화'로 지목된 현상들이 50년이 지난 현재 언어변화로 판단할 수 있는지 생각해보고자 한다. 언어변화의 관찰과 기술은 시간의 흐름을 전제로 한다. 언어변화 양상에 대한 후대의 논의는 변화의 과정을 거친 결과(consequential)에 해당한다(Coupland 2016:437, Mortensen 외 2017:14). 이 글에서 1960년대 당시 기록에 언어변화로 지목된 현상들이 반세기가 지난 현재 언어변화로 이어졌는지를 논의하는 관점은 현재 시점을 언어변화의 실현 여부를 판단 시점으로 하는 결과론적 관점(consequential perspective)을 취한다.

## 2. 연구 대상 자료

이 글의 연구 대상 자료는 1960년대에 '사회변동과 언어변화'에 주목한 연구자들의 글이다. 출판 매체에 따라 학술 연구물과 언론 기고문으로 구분된다. 학술 연구물의 수집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과 국회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에서 확보했다. 그리고 이 주제에 대해 이 당시에 나온 연구사 논문으로 장태진(1966)이 있다. 장태진(1966)은 1927년부터 1966년까지 한국어 연구 중에서 언어 연구에서 사회적 관점의 필요성을 언급했거나 사회 집단별 언어, 언어 연구에서 사회적 요인을 언급하거나 이를 언어 분석의 요인으로 적용한 연구들을 모아 '국어사회학'이라는 명칭으로 연구사를 작성한 것이다. 장태진(1966)은 한국어 사회언어학의 자생성을<sup>1)</sup> 보여준다는 점에서 가치가 있다. 이 글에서 살펴볼 언론 기고문은 1920년부터 현재까지 동아일보, 조선일보, 경향신문의 영인본을 볼 수 있는 네이버 뉴스 라이브러리와 이미지 형태로 당시 신문 기사를 볼 수 있는 한국역사정보통합시스템의 근현대 신문, 잡지 자료에서 수집한 것이다.

이 글에서 살펴본 자료의 생산자인 국어 연구자들은 당시 기준으로 30대 이상의 대학원 교육을 받은 고학력 남성이며 언어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들이다. 이들의 논평(linguistic commentary)에는 이들의 사회적 지위, 가치관, 언어에 대한 믿음(linguistic belief), 언어에 대한 감정 등이 반영되어 있다. 연구자가 당시 기록에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는 표현을 쓰는 사례로

1) 김하수(2010:92)는 “한국어 연구는 주시경 이래 태생적으로 사회언어학적 함의를 항상 품고 있었다고 말해도 무리는 아니다”라고 하였다. 어문규범 정비, 표준화, 언어계획 등이 당시 국어연구의 주된 주제였기 때문이다. 장태진(1966)에서도 해방 이전 표준어 관련 연구들을 ‘국어사회학’ 연구에 포함시켰다. 일본에서는 1930년대부터 독자적인 사회언어학이 있었다는 의견이 있다. 眞田信治·임영철(1993:11)은 키쿠사와(菊沢季生)의 1933년 <국어위상론>이 언어는 어떤 집단이 어떤 장면에서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고 했으며 여기서 나타나는 공통점과 차이점을 연구하고자 했다는 점에서 사회언어학의 선형적인 연구라 하였다. 그런데 언어를 사회 속에서 파악하려고 한 사회언어학적 생각은 주시경이 1906년에 낸 <대한국어문법>에도 나온다. 이 책의 <문답편>에는 “말이 사회에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는 질문과 “말이 다른즉 자연 사회도 다르고, 말이 같은즉 자연 사회도 같아지나이다.”라는 답이 등장한다. <대한국어문법>에는 언어가 “의사를 발표하여 그 사회에 행하는 것”이며 사회는 “여러 사람이 그 뜻을 서로 통하고 그 힘을 서로 연(聯)함이 그 생치를 경영하고 보존하기에 서로 의뢰하는 인연의 한 단체”라고 하고, 말과 글이 없으면 사람들이 뜻을 서로 통할 수 없으며 사회가 성양(成樣)되지 못한다고 하였다. 주시경은 언어가 “한 사회가 조직되는 근본이요 경영의 의사를 발표하여 그 인민을 연락케 하고 제작(制作)케 하는 기관”이기에 사회 발달을 위해 말과 글을 닦아야 한다고 하였다. 언어와 사회의 밀접한 상관관계를 천명하고 이러한 언어관을 바탕으로 언어 연구를 했다는 점에서 주시경은 한국 사회언어학의 선각자로 볼 수 있다.

해방 이후 언어변화에 대해 논평한 강신항(1963a)의 “8.15 이후 옛날의 소위 태평성세하고는 도저히 비교도 되지 않으리만큼 크나큰 사회적 변동과 혼란을 겪어왔다.”와 강신항(1963b)의 “우리 언어생활에 또한번 크나큰 변동을 가져온 것은 6.25의 비극이었다(중략) 인심은 각박해지면서 상호간의 말투는 거칠어만 갔다.”는 내용이 있다. 8.15와 6.25에 대한 감정, 당시 언어실태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이 드러나는 표현이다. 이처럼 감정은 구체적인 문장으로 드러나기도 하고 행간을 통해 추론해야 할 수도 있다. 이를 정교하게 분석하는 것은 국어학사와 사회언어학이 융합한 별도의 연구가 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언어변화나 세태에 대한 감정이 부정적이라고 해도 연구자는 언어자료 수집에는 적극적이며 전문가로서 신뢰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려고 노력한다. 국립한글박물관(2020:26)의 2016년 강신항 교수의 구술인터뷰에는 30년 동안 구어자료를 얻기 위해서 언어자료를 수집했다는 내용이 나온다.<sup>2)</sup> 이 글이 국어학사 자료의 사회언어학적 활용에 착안한 이유도 자료의 신뢰도와 관련이 있다.

### 3. 1960년대 국어연구에서 지목한 사회변동에 의한 언어변화

당시 연구자들이 ‘해방’ 이후의 언어변화라거나 ‘6.25’ 이후의 언어변화라고 언급한 배경에는 1945년 8.15 해방이나 1950년에서 1953년에 이어진 6.25 전쟁이 1960년대 시기 언어변화의 계기 또는 원인으로 보는 관점이 있다. 김형규(1961)에서는 젊은 세대 사람들이 점차 존대어를 잊어가고 어린 학생들은 욕설을 남용하는데 이는 “해방과 육이오 사변 이후 우리 사회 혼란의 반영”이라는 해석이 있었고, 강신항(1965)은 연구자가 판단한 언어의 변화상을 나열하며 “해방 이후 언어생활이 거칠어졌다”고 하였다. 조선일보 1967년 10월 8일자 한글날 기념 강연 기사에서 강연자 김성배 교수는 “지난 32년 동안의 외래 문화의 수입과 6.25 동란은 우리의 언어 생활에 혁명적인 변화를 가져왔다.”고 하고 자신이 지목한 언어변화가 사회변동과 연관이 있다고 설명하였다.

‘해방’과 ‘6.25’는 1960년대 당시 인구이동, 외래 문화의 유입, 사회 구조의 변화 등 인간의 언어행동 변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들이 내재된 단어이다. 따라서 이 두 단어는 두 개의 단어가 아니라 수많은 사건들의 집합체이며, 이를 언어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변동으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세분화하여 봐야 한다. ‘해방’과 ‘6.25’ 전쟁에 의한 인구이동과 인구변화는 언어변화의 요인이 될 수 있다. 인구이동은 언어접촉을 일으키고, 언어접촉은 언어변화로 이어질 수 있다. 도시의 인구집중이 시작된 시기도 1960년대이다. 그리고 연구자들이 당시 10대, 20대 청년층을 언어변화의 개신자들로 지목했는지 그 사회적 배경도 세밀하게 살펴봐야 한다. 당시 연구에서는 이들을 가리켜 해방 이후에 태어나서 새로운 사회 질서 속에서 성장했고 그래서 이전 세대와 차이가 있다고 설명하고 있지만 후대의 국어학자들은 이들에 대한 사회학적, 인구학적 분석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1960년대 출생자 그룹은 한국어로 초등교육을 받은 세대이며 현대 도시 사회에서 최초로 청소년의 하위문화를 형성한 세대이다. 이처럼 사회문화

2) 국립한글박물관(2020:26-27)의 인터뷰 내용은 다음과 같다. “그런데 한자음 연구를 하다 보면 국어학사를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국어학사를 연구하다 보니까 1443년에 한글을 창제해서 수많은 서적이 나왔습니다.《석보상절》,《월인석보》등이 있는데, 모두 문어로 쓰인 책입니다. 나중에 종종 이후에 정철 같은 가사작가도 나왔지만, 당시에 일반 사람들이 어떤 구어를 썼는지 알 수 없는 것이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두 가지를 함께 해보려고 했습니다. 산문자료를 수집해서 열심히 구어, 속어, 유행어를 30년 동안 수집했는데, 국어연구원에서 신어를 1년에 한 권씩 내고 있어서 개인으로는 도저히 못 따라가겠다 싶어 중단했습니다. (중략) 정리하자면, 애당초 목적은 구어사 자료를 수집하는 것으로, 백성의 문어가 아니고 유행어, 신어, 속어를 수집하는 것이었습니다.”

적으로 이전 세대와 다른 이질감이 당시 연구자들에게 '언어변화'로 인지될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 1960년대 당시 연구자들이 특정 언어 현상에 대해 사회변동과 관련이 있다고 판단한 것을 논증하는 것은 20세기 한국어의 역사적 변화를 규명하는 한국어 변천사나 한국어 사회언어학의 연구를 위해 필요한 작업이다.

(1)은 1960년대 당시 연구물에서 사회변동과 관련한 언어변화로 지목된 현상을 정리한 것이다. (1)에 나온 항목들이 현재 사회 전체로 확산된 언어변화인지, 진행 중인 언어변화인지, 일시적인 유행인지 검토하고자 한다.

#### (1) 1960년대에 사회변동과 관련된 언어변화 현상으로 지목된 항목들

##### 가. 말소리 변화

1) 어두 경음화: '자식[짜식], 동그라미[똥그래미]/강신항(1965), '땀다[땀아], 자르다[짜르다], 조금[쪼금]/김성배(1967)

##### 나. 문장 변화

- 1) '해요체'의 확산(신창순 1963)
- 2) 반말의 일반화(강신항 1965)

##### 다. 의미 변화

- 1) 2인칭 대명사 '당신'을 호칭으로 쓸 때 경어로 사용하는 경우(김종운 1962)
- 2) 가족 명칭(아저씨, 아주머니)가 가족 외 사람들을 가리키는 경우(강신항 1965)
- 3) 남편을 '아빠'라고 부르는 경우(강신항 1965)
- 4) '공갈(恐喝)'을 '거짓말'의 의미로 전용하는 경우(김방한 1966)

##### 라. 청소년, 청년층 비속어 사용의 일반화

- 1) 청소년의 비어 사용(김형규 1961)
- 2) 여대생의 은어 사용(김은우 1963)
- 3) 학생, 군인의 속어 사용(장태진 1966)

가 -1)의 강신항(1965)과 1967년 조선일보(10월 8일자), 동아일보(10월 10일자)에 실린 국어 국문학회 강연회(1967년 10월 4일)에서의 동국대 김성배 교수의 발표 결과에 당시 젊은 사람들에게서 어두 경음화가 증가하고 있다는 내용이 나온다. 이들의 기록은 당시 서울 지역어를 전제로 한 것이고, 1960년대 당시 10대와 20대는 1940년대, 50년대 출생자이다.

그런데 젊은 사람들이 경음화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는 보고는 30년 후, 40년 후의 연구에도 반복적으로 제시된다. 2003년의 20대부터 70대까지 서울 토박이를 대상으로 173개 조사 항목 156명 제보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이호영(2009:161)에도 젊은 층들이 경음화를 선호한다는 결과가 있다. 2010년에 10대에서 60대에 이르는 제보자 240명을 대상으로 실험조사한 한명숙(2011:43)에서도 젊은 세대로 갈수록 어두 경음화 현상이 증가한다는 결과를 얻었다. 그렇다면 한국어의 어두 경음화는 특정 세대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한국어의 연령 단계 변이(Age-graded variation) 현상으로 젊은 세대가 중장년층이 되면 어두 경음화 실현율이 낮아진다고 해석할 수도 있다. 해당 언어사회의 신세대는 유년기와 청소년기에 어두 경음화를 실현하다가 이들이 성장하여 성인기에 접어들면 자신이 속한 사회에서 규범으로 인정되는 관습적인

발음을 선택하고 이러한 움직임이 동연령대 구성원들 사이에서 동조(accommodation)하면서 청소년기와 구분되는 언어 행동으로 나타난다.

다른 한편으로는 어두 경음화가 실현되는 빈도가 잦은 어휘는 개별적으로 언어사회 구성원들에게 경음으로 인식되고 그 발음으로 정착했다고 볼 수도 있다. 현대국어에서 어두경음으로 실현된다고 인정되는 어휘들을 표준어로 인정하는 방안에 대한 연구인 한명숙(2017)에서는 경음으로 실현되는 빈도가 높은 어휘 목록을 조사하고 어두 경음화 현상의 실현 양상을 “수의적이며 화자에 따라 개별성”이 있으며 특정 단어에서 일관성 있는 어두 경음화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러한 어휘들은 연중들이 표준형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고 어휘 사용 빈도도 높다고 하였다. Bloomfield(1933:476)는 집단 내 언어 사용이 양상이 비슷해지는 움직임이 있으며 이에 대해 “모든 화자는 자신의 말하기 습관을 대화 상대의 습관에 지속적으로 맞춘다(Every speaker is constantly adapting his speech-habits to those of his interlocutors).”라고 하였다. 한 집단의 구성원들이 어두에 경음으로 내는 고빈도 어휘가 확산되면 이 어휘가 사용될 때마다 어두 경음의 실현빈도가 증가한다. 동조 행동은 다른 집단에서 해당 어휘를 어두에 경음으로 실현하지 않는 경향이 큰 경우에도 적용된다. 그 집단은 어두에 경음이 실현하지 않으며 역시 사용될 때마다 실현빈도도 증가한다. 두 집단의 언어 차이가 발생하게 된다.<sup>3)</sup> 이 차이가 항상 존재하면 특정 언어 현상의 전면적인 확산은 어렵다. 그 현상을 실행하는 집단과 실행하지 않는 집단이 공존하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보면 1960년대의 어두 경음화의 확산 예측과 달리 21세기 한국어에서 어두 경음화는 어휘 개별적으로, 연령 단계별 변이로 나타나는 현상이라 하겠다.

다음으로 나 -1) '해요체'의 확산과 나 -2)반말의 일반화를 생각해보고자 한다. 당시 반말의 사전적 정의는 고영근(1974:80)에서 인용한 1957년 <큰사전>의 뜻풀이로 “말끝을 줄이고 토를 똑똑히 달지 아니하여 높고 낮추는 뜻을 드러내지 않고 어름어름 하는 말”이다. 고영근(1974:84)에서는 화자가 의도적으로 반말을 사용하는 이유에 대해 최현배(1937)의 “존비의 등분이 까다롭기 때문에 잘못하면 교제상 큰 실수를 범하게 된다. 이러한 어려움을 피하는 방편이 반말”임을 인용하여 설명했다.

2011년 <고려대한국어대사전>의 '반말' 뜻풀이에는 “아랫사람에게 낮추어 하는 말투”가 있다. 강신항(1965)의 '반말'에 대한 언어태도는 1957년 <큰사전>의 반말의 정의보다는 2011년 <고려대 한국어대사전>의 정의에 해당한다. 반말 사용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표출했기 때문이다. 강신항(1965)는 당시 언어 사회의 분위기가 이전 사회와 달라졌음을 알려준다. 청자가 친소와 무관하게 화자에게 높임말을 듣고 싶어 한다면 이들은 반말을 낮춤말로 인지할 수 있다. 그렇다면 화자에게 낮추는 뜻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큰 실수를 범하게 된다.”

고영근(1974)는 개화기 이후 “종전에 반말이라고 불리어 왔던, 조사 '요'가 통합될 수 있는 일련의 어미들”로 '해라체'나 '하게체'에 '요'가 붙은 형태인 “요' 통합가능형'과 '하오체'와 '합쇼체'에 '요'가 붙은 “요' 통합형'으로 '해요체'를 구분했다. 고영근(1974:81)은 당시 “요' 통합가능형'은 어린이나 젊은 처녀들 사이에 흔히 쓰이는 말로 1940년대를 전후로 사용이 확대되었고 이러한 변화가 당시 문법서에 반영되었다고 하였다. '해요체'를 '반말'로 인지하지 않는 문법서가 나오기 시작한 시점을 알려주는 문장이다. 고영근(1974:82)는 1950년대 이전 문법서에서는 '요'가 붙은 형태들을 존비법에서 반말로 처리했는데 1950년대 이후에 나온 문법서에서는 독자

3) 연령 단계 변이 연구에서는 청소년이 취업을 하거나 대학에 진학하여 그 기성 사회 집단의 규범어로 언어를 교체하는 경우도 이동으로 파악한다. 관련 연구로는 Wagner, S., & Sankoff, G. (2011), Wagner(2012)가 있다.

적 등분의 자격을 주고 문법가마다 높임과 낮춤의 등분을 부여하는 특징이 있다고 하여 '해요체'가 당시 규범어의 언어 체계에 들어왔지만 지위는 문법가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하였다.

20세기 '해요체'의 확산은 비격식적인 반말이 언어 사회 구성원의 합의 속에서 경어로 지위가 이동하는 과정을 보여준다. 서정수(1979:213)는 '해요'가 "어감이 부드럽고 친근한 느낌을 주는 특색", "상하 등급 의식을 완화시키는 작용함으로써 말씨를 모나지 않게 하는 기능"이 있어서 전 사회로 확산되었다고 설명하였는데 실제 언중들이 '해요체'를 감정적으로 선호해서 썼다는 좀 더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 김희숙(2000:180)은 기능적 관점에서 언어공동체에서 '해요체'를 받아들인 이유를 상대방의 정보를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대화 중에 발생할지 모르는 갈등을 줄이는 책략이라고 설명했다. 20세기 전반기에 '아이들과 젊은 여성들'이 주로 쓰는 반말이었던 '해요체'가 20세기 말에 낮은 상황에서 자신을 보호하는 말의 기능을 얻은 것이다. 현재 '해요체'는 최윤지(2018), 김희진(2019)에서 보듯 방송 뉴스에서도 진행자가 출연한 패널과 대화하거나, 아나운서가 연성 뉴스에서 시청자들에게 정보를 전달할 때 사용된다. 21세기 한국어 사회에서 '해요체'는 경어체로 자리를 잡았으며, 격식성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지만 상대방을 하대하거나 반말을 한다는 인상은 주지 않게 되었다.

다음은 다 -1) 2인칭 대명사 '당신'을 호칭으로 쓸 때 경어로 사용하는 경우이다. 김종운(1962)는 2인칭 대명사 '당신'을 절대 경어로 볼 수 없음을 주장한다. 글은 이렇게 시작한다. "오늘날 둘째 가리킴의 높임말로써 '당신'이란 말을 허다히 들을 수가 있다. 그러나 듣는 이로 하여금 불쾌한 감정을 자아내게 함이 예사이며, 또한 심한 경우에는 시비까지 일어나는 현상이 있다." 김종운(1962:478)은 최현배(1937)에서 2인칭대명사 아주높임과 예사높임에 '당신'을 인정하고 있는데 이는 언어사적으로도 맞지 않고 언어 현실에 적합하지 않으며 "손윗사람이나 지체가 높은 사람에게 둘째가리킴에 있어서 과연 당신이란 높임말을 사용할 수가 있는가. 이는 아직 우리 사회에서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말(김종운 1962:477)"이라고 하였다. 이후 연구들을 보면 '당신'은 '허다히 들을' 수 있을 만큼 높임말이 되지는 않았다. 양영희·송경안(2009:197)은 세대별, 남녀별 간의 대화 자료 분석을 통해 '당신'의 쓰임이 2000년대 현재 주로 부부 사이의 지칭어로 사용되며, 남성들이 주로 사용되는 남성어로 제한되었다고 하였다. 호가(2017:33)는 목정수(2014)의 설명을 바탕으로 화자가 상대방을 부를 때 '당신'을 사용하면서 화자가 청자와의 거리를 조절할 수 있는데 극존칭에도 사용할 수 있고, 상대방과 거리를 떨어뜨리기 위해서도 사용할 수 있다는 양면성이 있어서 상대방을 자극할 수 있다고 하였다. 경어 사용에서 '청자대우'라는 말의 의미처럼 말하는 사람이 부여하는 의미보다 듣는 사람이 느끼는 의미의 비중이 크기 때문에 '당신'의 사용에서 시비의 여지가 있다면 사용이 위축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면 '당신'은 대화를 이어가는 데 도움이 되기보다는 방해가 될 수 있는 말이다.

'해요체'는 반말이었지만 사회 구성원들이 경어로 받아들이며 사회 전체적으로 확산되었다면 '당신'은 사회 일각에서 경어로 사용하려는 의도가 있었을 수도 있지만 그 의도는 전체 사회구성원들에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사용도 일반화되지 않은 사례이다. 언어사용자의 행동, 즉 청자와 화자의 관계에서 느끼는 감정이 언어변화에 영향을 준다고 하겠다.

청자와 화자의 관계가 느끼는 감정이 언어사용의 확산에 미치는 영향은 다 -2) 친족 명칭 '아주머니, 아저씨'의 사용 변화에서도 관찰할 수 있다. 강신항(1965)에서는 '아주머니'와 '아저씨'를 주목했지만 1990년대 언론과 연구자들은 '아주머니'의 준말인 '아줌마'라는 명칭을 친족이 아닌 사람에게 청자가 느끼는 감정과 용법의 적합성을 다루었다. 언론기사에서 '아줌마'의 사용 빈도는 1998년을 기점으로 1999년에 급증하는데 이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언론에서 '아줌마

현상'이라고 하며 기혼여성들을 부각시켰기 때문이다.<sup>4)</sup> 최희정(2004)은 1990년대~2000년대 신문, 국어말뭉치, 인터넷 게시판과 대화방, 잡지와 뉴스에서 '아주머니'와 '아줌마'의 쓰임을 조사하고 사회언어학적 의미를 분석했다. 최희정(2004:67)은 실생활에서 '아주머니'보다 '아줌마'가 더 많이 사용되고 있으며, '아주머니'는 50대 이상의 중년 여성을 가리키는 말로 격식적이고 공식적인 어휘로 인식되어 사용이 제한되지만 '아줌마'는 30세 이상의 기혼 여성을 두루 가리키는 말로 사용범위가 넓고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의 양면적 속성으로 다양하게 쓰인다고 하였다. 김광순(2018)은 '아저씨', '아주머니', '아줌마'가 실제 언어 생활에서 친족이 아닌 사람들에게 사용되는 경우의 형식·의미 확장 양상을 다룬 논문이다. 논문에 의하면 이 어휘들은 청자대우의 의도가 없을 경우 부정적인 의미를 담고 있기에 지시 대상에 호칭으로 사용하는 것은 제한되는 공통성이 있으며, '아주머니'는 50대 이상의 여성을 지칭할 때 가장 활발히 사용되며, '아저씨'는 직업 명칭과 결합하여 친밀함을 전달하는 전략으로 사용할 수 있고, '아줌마'는 아주머니에 비해 낮춤말의 특징이 더 강하고 언어사용자가 자신을 지칭할 때 가장 자연스럽게 사용된다고 하였다. 1960년대의 기록과 비교해보면 친족 명칭의 친족이 아닌 이에 대한 사용은 21세기 이후 더 정교한 화용론적 규칙을 갖게 되었다고 해석할 수 있다. 그리고 그 규칙은 1960년대 이전 시대에 정해진 의례의 규칙보다는 개인과 개인의 관계, 장면, 상황 맥락, 갈등회피전략, 구성원들의 역할 수행의 효율성과 관련이 있다.

다 -3) 남편을 부를 때 '아빠' 호칭의 사용은 196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 언론에서 자주 등장하는 문제였다. 자녀의 이름을 붙여서 '00 아빠'라고 지칭하는 것은 의미상 용인되지만 남편을 부를 때 '아빠'의 사용은 호칭 사용에 혼란을 주며 적절하지 않다는 이유에서이다. 남편을 '아빠'라고 부르는 호칭은 2000년대 이후 20대 부부부터 감소하는데 한영옥(2005)에서 지적한 것처럼 자녀가 없는 부부도 있기 때문이다. 대신 남편의 이름에 '씨'를 붙이거나 '오빠'라고 부르는 비율이 높았다. 1920년대 이후 1980년대 초반까지 태어난 한국인들의 결혼 이행 패턴을 통계조사한 최선영(2020:188)을 보면 1990년대 후반 이후 생애미혼율이 상승하고, 1990년대 후반 경제위기 이후 대졸 여성의 증가와 취업률 상승, 만혼자와 비혼자의 증가 등으로 1970년대 이후 출생자 집단에서 이전 세대와 다른 결혼 행동이 나타남을 통계 분석 자료로 확인할 수 있다.

1960년대 당시 부부 호칭이 문제가 되었던 사회적 배경에는 이 시대가 보편혼 문화가 있는 개혼(皆婚)사회였기 때문이다. 여성이 결혼을 하지 않는다면 남편의 호칭을 고민하는 상황에 처하기는 어렵고, 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남편을 '아빠'라고 부를 것인지 고민하는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도 낮다. 그 문제가 발생하는 환경이 성립되지 않으면 문제도 발생하지 않게 된다.

언어생태학자 Mufwene(2001:17)는 언어를 유기체로 볼 때 사회나 사용자와 별개인 독립적인 생명체(biological species)라기보다 기생체(parasitic species)로 보는 것이 언어변화에 더 설명력이 있다고 하였다. 언어는 언어사용자에 의해 생명력을 얻고 그 생명과 활력이 숙주(화자)의 행동과 기질, 사회, 문화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언어사용자가 줄면 언어가 사라지는 사례는 많다. 언어를 문화적 자원이고 유산으로 보는 입장에서는 언어 문제로 인해 항상 논쟁이 생기더라도 언어 그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문화의 상실이기에 원하지 않을 수도 있을 것이다. 부부간 호칭은 언어 예절이나 언어 규범 문제 차원이 아니라 앞으로 한국 사회의 인구 구조 변화가 어떻게 언어변화로 이어질지 지켜봐야 하는 문제이다.

4) 최상진 외(1999:64)는 외환위기 이후 기혼여성에 대한 사회적 이미지가 달라진 계기로 “역척스럽고 푸근하고 자기 희생적인 어머니 같은 면모가 경제적 불안과 생활고에 찌든 국민들에게 크게 어필”했다고 하였다.

다음은 다 -4) '공갈'의 의미 전용이다. 김방한(1966)은 '공갈(恐喝)'이 '거짓말'이라는 의미로 사용되는 현상에 대한 보고이다. 당시 초중고등학교 학생들, 특히 어린이들이 정확한 뜻도 모르고 사용하며 사용빈도 증가에 의해 의미에 대한 감각이 둔화되고 있다고 보았다. '공갈'은 1960년대 아동, 청소년들 사이의 유행어로 60년대 내내 신문 지상에서 자주 언급되었다. 조선일보 1959년 3월 11일자에는 "남아들의 용어로는 '거짓말마라' 하는 것이 '공갈마라'가 된다"는 기사, 1961년 12월 10일자에는 "'공갈마'하는 아동들의 상투어는 이제 시정 가능단계를 지나서 만연하고 있다"는 기사가, 경향신문 1962년 2월 2일자 기사에도 어린이들 사이에서 '공갈'이라는 말이 유행한다는 기사가 실렸다. 1972년 7월 11일자 조선일보에 동요작가 어효선 시인의 인터뷰에는 "아이들까지도 동화(童話)는 공갈이라더군요. 동화가 어린이들에게는 거짓말로 느껴지는 모양이지요?"라는 발언이 나오는데 1970년대 초반까지도 '공갈'이 거짓말과 동의어로 쓰였다는 예라고 하겠다. '공갈'은 1973년 이후 어린이들의 언어사용에 대한 기사로는 더 이상 언론에 나오지 않는다. 1950년대~1960년대 출생자 집단이 성년이 된 시기부터 언론에서 '공갈'의 사용빈도가 줄어들었다고도 볼 수 있다.

라. 청소년, 청년층 비속어 사용의 일반화는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 비속어 사용이 문제가 된 1960년대의 청소년, 청년들은 2020년대 현재 50대~60대가 되었다. 이들이 지금도 비속어를 쓰는지 조사하거나 그때 그 단어들을 기억하고 아직도 사용하는지 알아보는 것도 흥미로운 연구가 될 것이다. 1960년대에 수집되고 지목된 이 당시 아동, 청소년들의 언어적 특성은 50년이 지난 현재 그들의 생애사를 통해 이들의 언어 형성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청소년들의 언어적 일탈이나 비속어 사용 경향은 세계 여러 언어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최근 그리고 성년기 이후 이들이 청소년기의 언어 특성을 유지하는지 아니면 성인들의 언어에 적응하는지, 만일 언어 사용 양상을 바꾼다면 이에 적용되는 언어외적 요인이 무엇인지 연구할 수도 있고, 50년의 시간 차이를 두고 청소년 언어 문화의 변화를 비교해볼 수 있는 자료로도 활용할 수 있다. 1960년대의 연구자들은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연구 과정에서 현대국어의 언어변화를 관찰할 수 있는 자료를 축적하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 4. 결론

이 글에서는 1960년대를 중심으로 당시 국어 연구자들이 지목한 사회변동과 관련된 언어 현상들을 정리하고, 반세기가 지난 지금 과연 그 현상을 언어변화라고 할 수 있는지, 그 언어 현상이 사회변동과 구체적으로 어떤 관련이 있었는지, 이후 연구에서 어떤 궤적으로 조망되었는지 대략적으로 살펴보았다. 1960년대의 연구자들은 10년 전의 한국전쟁, 20년 전의 해방의 기억, 당시 선배 학자들의 어문민족주의에 새롭게 외국의 언어 연구 방법론을 접한 사람들이다. 이들의 연구들은 국어학사의 연구 자료이기도 하지만 동시대 언어사용자들이 남긴 전문성 있고 신뢰도 있는 언어 자료로도 활용할 수 있다. 그리고 사회언어학과 국어학사, 그리고 20세기 한국어 변천사 연구에 이 글의 접근 방식이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1960년대에 연구자들에 의해 사회변동에 의한 언어변화로 지목된 현상들이 2020년대 현재 언어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지는 않았다. '해요체'의 정착처럼 사회구성원들의 요구에 의해 확산된 경우도 있지만 '당신'의 사례처럼 사용 범위가 더 제한된 경우도 있다. 남편을 부르는 호칭 '아빠'는 아이가 없는 부부나 비혼자 증가 등 사회 문화 변화의 영향을 받아서 축소되었다. '아



저씨, 아주머니' 친족 명칭의 비친족 대상 사용에는 1960년대보다 2010년대에 더 정교한 화용론적 규칙의 제한을 받는다. 어두 경음화 현상처럼 어휘 개별적으로 실현되며 1960년대부터 2010년대까지 '젊은 층'에서만 지속적으로 높게 나타나는 양상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었고, '공갈'의 사용처럼 한 시기의 유행어로 가라앉은 경우도 있었다. 물론 이 글에서 다룬 현상들의 설명은 관련 연구자의 관점과 새로운 근거 자료의 제시에 의해 달라질 수 있다. 언어변화는 학제적인 연구 주제이다. 언어변화가 무슨 이유로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설명하려면 언어변화를 연구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분야(역사언어학, 언어유형론, 언어접촉, 사회언어학 등)에서 얻을 수 있는 지식을 두루 고려하여 입체적으로 접근해야 설명력과 설득력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필자는 한국어에서 사회변동과 언어변화 연구를 위해 현대의 연구자들이 1960년대에 좀 더 관심을 기울이기를 기대한다. 1960년대는 당시 연구자들이 느낀 국어 변화의 분기점이고, 국어학사적으로도 국어 규범화 연구가 정리되는 시점에서 실증적인 현대국어학으로 전환되는 시기로 국어연구의 방향이 다양화된 시기이다. 8.15 해방 이후 20년이 지난 시기로 인구 구조상 일제강점기에 태어난 세대가 중년기에 접어들었고 해방 이후에 태어난 세대가 청소년기, 청년기에 진입한 시기였다. 2020년대 현재 1960년대 출생자 집단은 50대로 중장년기에 진입했다. 출판, 방송, 녹음 기술, 자료 보존 기술의 발달로 1960년대 출생자 집단부터 현대 한국어 변화의 종단연구가 가능하게 되었다. 이들의 일생 동안의 언어 변화를 관찰하고 분석하는 연구 방법이나 연구 프로젝트는 20세기 한국어 변천사 연구의 기초 자료가 될 것이다.

## 참고 문헌

- 강신항(1963a), 해방 18년 언어이력 상, 동아일보 1963년 8월 13일.  
 강신항(1963b), 해방 18년 언어이력 하, 동아일보 1963년 8월 15일.  
 강신항(1965), 언어생활의 변모, 동아일보 1965년 8월 5일.  
 고영근(1974), 現代國語의 尊卑法에 대한 研究. 어학연구 10.2, 66-91쪽, 서울대학교 어학연구소.  
 국립한글박물관(2020), 강신항, 2016 한글을 듣다(한글문화인물구술총서 2). 국립한글박물관.  
 김광순(2018), 친족어 {아저씨}, {아주머니},{아줌마}의 비친족어로서의 확장·사용 양상. 언어, 43(1), 1-20쪽, 한국언어학회.  
 김방한(1966), 공갈과 거짓말, 경향신문 4월 4일자.  
 김은우(1963), 隱語를 通해본 女大生 氣質論, 世代. 제1권 통권5호(1963년 10월), 70-77쪽, 世代社.  
 김종운(1962), 높임말 "당신"에 대하여. 한글, 130, 475-486쪽, 한글학회.  
 김하수(2010), 언어사회학이 지나온 길과 나아갈 길. 사회언어학, 18(2), 79-103쪽, 한국사회언어학회.  
 김형규(1961), 구어사의 시대구분의 문제 - 언어와 사회와의 관계, 동아일보 1961년 11월 29일.  
 김희숙(2000), 청자대우 '해요체' 사용과 사회적 집단과 상관성. 사회언어학, 8.1, 167-204쪽, 한국사회언어학회.  
 김희진(2019), 뉴스 담화의 화계 사용 양상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목정수(2014), 「한국어, 그 인칭의 비밀」, 태학사.  
 박영순(1976), 국어(國語) 경어법(敬語法)의 사회언어학적(社會言語學的) 연구(研究). 국어국문학, 72-73, 47-65쪽. 국어국문학회.

서정수(1979), 사회구조 변동과 한국어 경어법의 추이. *성곡논총*, 10, 186-221쪽, 성곡언론문화재단.

신창순(1963), 相對尊待語攷, *文耕*, 15, 180-196쪽, 中央大學校文理科大學.

양영희·송경안(2009), '당신'의 변화 양상 고찰 - 국어 호칭·지칭 체계 수립을 위한 한 시도-. *언어과학연구*, 0.49, 183-202쪽, 언어과학회.

장태진(1966), 言語社會學의 成立 및 그 發達과 國語社會學的 研究傾向에 對하여(下). *語文學論叢* 7, 72-87쪽, 朝鮮大學校 國語國文學研究所.

최경봉(2010). 국어학사의 서술방법론에 대한 비판적 고찰 - 근대국어학사의 서술 문제를 중심으로. *국어학(國語學)*, 59(0), 153-184쪽, 국어학회.

최상진, 김지영, 김기범(1999), 한국사회에서 아줌마의 사회적 표상과 아줌마론.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4.1, 56-67쪽, 한국심리학회.

최선영(2020), 한국 여성의 생애과정 재편과 혼인행동의 변화.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최윤지(2018), 텔레비전 뉴스의 합쇼체와 해요체 사용에 관련된 언어 외적 변인 고찰: 말뭉치의 계량적 분석을 바탕으로. *사회언어학*, 26.4, 179-210쪽, 한국사회언어학회.

최현배(1937), 『우리말본』, 서울: 연희전문학교출판부.

한명숙(2011), 한국어의 어두 경음화 현상 연구. 건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한명숙(2017). 어두 경음화에 따른 새 표준어 사정 문제. *한말연구*, 44(0), 209-244쪽, 한말연구학회.

한영옥(2005), 상하·친소관계를 중심으로 본 한국인의 부부호칭 변화. *한국언어문화학*, 2(1), 283-305쪽, 국제한국언어문화학회.

호가(2017), 인칭대명사 '당신'의 2인칭 용법으로의 발달 과정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Bloomfield, L. (1933). *Language*. New York: Holt, Rinehart & Winston.

Coupland (ed.), *Sociolinguistics: Theoretical debate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6.

Jones, M. C., & Esch, E. (eds)(2002). *Language change: The interplay of internal, external, and extra-linguistic factors*. Berlin: Mouton de Gruyter.

Jones, M. C. and Singh, I. (2005). *Exploring language change*. Routledge, New York.

Mortensen, J. Coupland, N.& Thøgersen, J. (eds.), *Style, mediation, and change: Sociolinguistic perspectives on talking media*.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17.

Mufwene, S. (2001). *The Ecology of Language Evolution (Cambridge Approaches to Language Contact)*.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doi:10.1017/CBO9780511612862

Wagner, S., & Sankoff, G. (2011). Age grading in the Montréal French inflected future. *Language Variation and Change*, 23(3), 275-313. doi:10.1017/S0954394511000111

Wagner, S. (2012). Real-time evidence for age grad(ing) in late adolescence. *Language Variation and Change*, 24(2), 179-202. doi:10.1017/S0954394512000099